주생활

지역성을 고려한 한국형 친환경 아파트의 계획요소 개발연구*
- 청주지역을 사례로 -

최 윤 정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소비자학과 조교수)

지금까지 친환경주거 관련 연구나 설계는 외국 사례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계획요소를 개발할 시점이다. 친환경 주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후나 제반 특성에 적합한 형태여야하고 거주자의 생활에 대응되는 공간설계가 요구되므로 '지역성'의 고려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아파트는 지역적 특색이 없는, 전국적으로 거의 획일적인 형태였다. 따라서 지역성에 대한 고찰과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요소를 추출하는 작업이 각 지역마다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첫 작업으로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의해 주택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청주지역을 사례로 지역성을 고려한 한국형 친환경 아파트의 계획요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주거계획에서의 지역성의 개념과 지역성 표현 아파트 현황, 청주지역의 지역성을 고찰하고, 전통성 표현 아파트와 친환경 아파트의 현황과 계획요소를 고찰하였으며, 지역성 · 전통성 · 친환경적 계획요소가 도입된 1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계획요소의 이용 및 관리특성에 대해 현장조사한 후, 청주지역을 사례로 지역성을 고려한 한국형 친환경 아파트의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주거계획에서의 지역성의 개념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건조환경을 포함한 요인들로 파악되며, 청주지역에서 주거계획에 고려할 특성으로는 자연환경으로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기후특성, 내륙적 위치 특성, 인문환경으로서 탑신제 풍습, 볏대가리 등의 민간주술, 직지 · 상당산성 등의 문화재, 그리고 건조환경으로는 가로수길과 같은 특성화 도로, 문화시설의 부족 등이 요약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지역성 · 전통성 · 친환경적 계획요소는 외부공간에 치중되어 있었고 외부공간에 도입된 요소들의 경우 이용은 매우 활발한 반면 관리상의 문제가 다분히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시 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호내부에 도입된 소수의 계획요소는, 전통문양의 도입과 같은 표면적 요소보다는, 실내정원과 맞통풍 평면과 같이 공간기능이 있거나 실내환경의 쾌적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이용도가 높고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고 파악된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청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친환경 아파트 계획요소로서, 자연환경으로서 기후를 반영한 옥상녹화와 필로티 공유공간, 맞통풍 평면형태, 내륙지역의 특성을 보완하는 외부 水공간과 실내정원(연못), 인문환경으로서 상당산성, 풍습 · 민간주술을 상징하는 정자, 솟대, 테마마당, '직지' 문양의 단지내 돌담 또는 외벽 색채, 건조환경으로서 청주 읍성도를 형상화한 단지배치, 단지내 문화공간 조성, 청주의 가로수길을 재현한 단지입구 등을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2003-002-C00316)의 중간발표임.